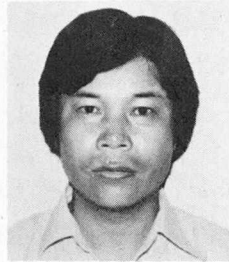


# 금년 하반기의 양돈경기 전망



김 용 진  
(축협 조사부 축산관측과장)

## 1. 머리말

돼지가격을 전망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돼지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때의 수요는 국민소득, 돼지고기 가격, 대체재 가격 및 식생활 구조·변화 등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 요인들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돼지사육 동향과 전망 및 돼지고기 소비 동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돼지가격을 전망하여 보고자 한다.

## 2. 사육동향과 전망

### 가. 사육동향

'85년 12월 이후 작년 9월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던 돼지 마리수는 작년말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서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치인 '88년 3월 현재의 돼지두수는 4백27만4천마리로서 1년전인 작년 3월보다는 75만8천마리(21.6%)가 증가되었으나,

3개월전인 지난 12월보다는 7천마리(0.2%) 정도의 미미한 감소 즉, 정체현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돼지 마리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미돼지 마리수는 금년 3월 현재 67만 8천마리로서 1년 전인 작년 3월보다는 11만3천마리(20.0%)가 증가되었으나, 3개월 전인 지난 12월에 비하여는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돼지 사육호수에 있어서는 금년 3월 현재 28만1천호로서 1년 전인 작년 3월보다는 1만9천호가 증가하였으나, 지난 12월보다는 2만2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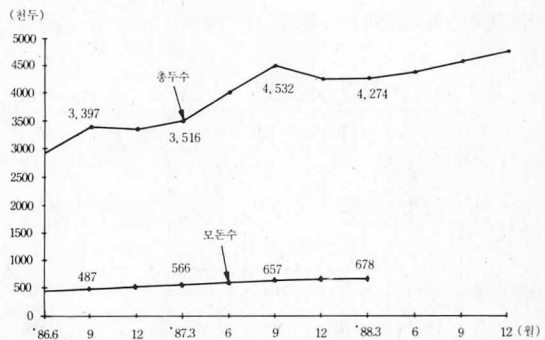


그림 1. 돼지두수 변동

## 금년 하반기의 양돈경기 전망

호가 감소되었으며, 호당 평균 사육두수는 작년 3월 13.4두에서 지난 12월에는 14.1두로, 금년 3월에는 15.2두로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1. 돼지사육 호수 및 두수현황(단위: 천호, 천두)

연월	'88.3	'87.12	'87.3	증 △ 감 (%)	
	(1)	(2)	(3)	1/2	1/3
사 육 호 수	281	303	262	△ 7.3	7.3
총 두 수	4,274	4,281	3,516	△ 0.2	21.6
2 개 월 미 만	1,423	1,169	1,180	21.7	20.6
2~4	1,345	1,565	1,089	△14.1	23.5
4~6	754	792	617	△ 4.8	22.2
6~8	102	108	95	△ 5.6	7.4
8 개 월 이 상	650	648	535	0.3	21.5
모 돈 수	678	678	565	0.0	20.0
6~8 개 월	(69)	(70)	(62)	(△1.4)	(11.3)
8 개 월 이 상	(609)	(608)	(503)	(0.2)	(21.1)

규모별 돼지사육 동향을 9년 전인 79년과 비교하여 보면, 10두 미만은 호수나 두수가 감소한 반면, 규모가 클 수록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500~5,000두의 규모에서는 호수가 4.2배, 두수가 3.7배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10두 규모 미만의 구성비를 보면 전업화 추세를 쉽게 알 수가 있는데, 79년에는 10두 미만의 구성비가 호수는 94%, 두수는 45%이었으나, 88년에는 호수가 79%, 두수는 11%

표2. 돼지 사육규모별 현황 (단위: 천호, 천두)

구분	합계	1~10	10~100	100~500	500~5000	5000이상
호 수	79	758	710	46	1,845	0.174
	88	281	222	53	5,558	0.736
	대비	△62.9%	△69.0%	15.2%	3.0배	4.2배
두 수	79	2,843	1,279	903	330	210
	88	4,273	471	1,434	1,184	770
	대비	50.3%	△63.2%	58.8%	3.7배	3.6배

수준으로 호수는 14% 포인트, 두수는 34% 포인트나 감소하여 사육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것은 경제이론의 하나인 대규모의 유리성을 추구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양돈용 배합사료의 생산실적을 보면, 금년 3월 총 생산량은 26만7천톤으로서 작년 12월 이후 감소하던 사료 생산량이 금년 3월에는 다시 증가되었다. 이는 작년 동월에 비하면 총 생산량은 33%, 모돈용은 28%, 육성용은 42%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3개월 전인 작년 12월보다는 총 생산량은 7%, 육성용은 19%가 감소되었지만 젓먹이용은 19%, 모돈용은 10%가 증가되었는데, 육성용 사료의 감소는 금년봄의 돼지값 회복과 관련되고 모돈용 사료의 증가는 앞으로의 두수 증가와 관련됨을 생각할 수 있다.

표3. 돼지 배합사료 생산실적 (단위: 천M/T)

구분	'87.1	2	5	8	10	11	12	'88.1	2	3	4
총생산량	203	208	230	265	297	275	296	270	244	276	272
젓먹이용	38	38	60	51	58	45	48	46	46	57	62
육성용	96	89	101	136	156	151	161	141	120	131	125
모돈용	31	32	35	34	40	36	41	40	40	45	43

### 나. 사육전망

작년말 이후 정체되었던 돼지 마리수는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6월에는 4백40만마리, 9월에는 4백60만마리, 12월에는 4백80만마리로서 금년 3월의 4백27만4천마리에 비하여 각각 3%, 8%, 12%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되는 이유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모돈수가 작년말 이후 정체되었다고는 하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생산잠재력을 감안할

“ 돼지 사육은 금년 6월에는 4백40만 마리, 9월에는 4백60만마리, 12월에는 4백80만 마리로서 금년 3월의 4백27만 4천마리에 비하여 각각 3%, 8%, 12%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88올림픽 등에 따른 경기활성화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작년말 이후 돼지값 회복에 따라 사육심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 3. 소비동향과 전망

작년도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37만8천톤으로서 86년도의 32만톤보다 16.6%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작년도의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도의 수요량은 41만9천톤으로 작년 소비량보다 12.3%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돼지의 전국 도축두수와 서울지역 공급두

수를 살펴보면 금년 들어서 작년 동기보다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 가격동향과 전망

#### 가. 가격동향

먼저 과거의 돼지 실질가격 주기변동을 살펴보면, 축산관측을 홍보하지 않았던 80년대 이전에는 주기의 변동이 30~32개월의 기간과 변동폭 즉, 진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그 원인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인 번식 생리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돼지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2~3개월령의 암돼지를 구입하여 6~7개월 육성한 후 종부를 시키며 4개월 후에 분만하여 5~6개월의 비육기간을 거쳐 출하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15~1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돼지값이 올랐다가 떨어진 후 다시 오르기까지는 30~32개월의 1주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축산관측을 실시하여 홍보하였던 80년 이후를 살펴보면, 주기변동기간이 길어지면서

표4. 서울지역 공급두수

(단위 : 천두/월)

연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87 (1)	143	134	159	144	145	155	168	174	191	185	200	225
'88 (2)	174	175	186	184								
2/1 (%)	121.7	130.6	117.0	127.8								

표5. 전국 도축두수

(단위 : 천두/월)

연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87 (1)	473	426	503	462	479	492	522	589	598	591	617	724
'88 (2)	552	581	591	611								
2/1 (%)	116.7	136.4	117.5	132.3								

## 금년 하반기의 양돈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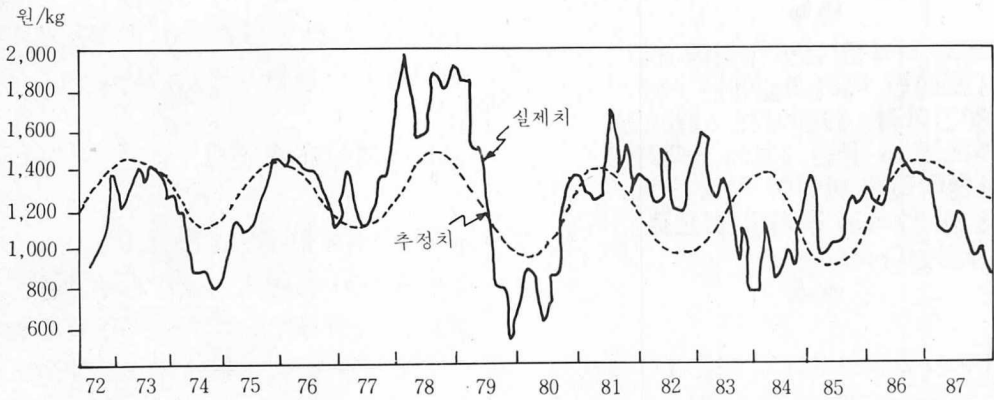


그림2. 돼지 실질가격 주기변동

표6. 돼지가격 동향

(단위: 천원/두)

구분	연월	'87.1	2	3	4	5	6	9	12	'88.1	2	3	4	5	6.11
비육돈		128	119	109	130	141	125	99	88	96	109	102	113	122	122
자돈		41	39	35	38	40	37	33	21	24	24	28	29	30	30

진폭이 적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81년 4월에서 '83년 1월까지의 22개월간이나 상승수준에 있었던 것과, '85년에서 '87년의 3년간에도 대체적으로 좋은 가격을 형성하였던 것은 축산관측 홍보에 모든 양돈가가 적극적으로 호응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의 가격동향을 보면, 작년 6월 이후 하락하던 돼지값은 작년 11월의 돼지수매 실시와 수요증가 및 사육두수 조절에 힘입어 금년 초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월별로 보면 3월중에 한 때 약세를 보였으나 4~6월에는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4~6월중에 회복세를 보인 것은 금년 3월의 2~4월령 마리수가 지난 12월 1백56만5천마리에서 금년 3월엔 1백34만5천마리로 14.1% 감소됨으로 4~6월 출하두수가 감소하였고,

반면에 돼지고기 수요는 5~6월에 모내기 시기로서 계절적인 수요가 증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경기가 활성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 나. 가격전망

그러나 하반기에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금년 3월의 2개월 미만 자돈수가 작년 12월 1백16만9천마리에서 금년 3월엔 1백42만3천마리로 21.7%가 증가됨으로써 6월말부터 7월중의 출하두수 증가가 예상되고, 금년 3월 현재 모돈두수의 생산잠재력을 고려할 때 총마리수가 증가됨으로서 공급두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시 월별 수급 상황을 보면, 출하 과잉이 예상되는 달은 6~8월, 10월, 12월이며, 출하 과소로 예상되는 달은 9월, 11월이 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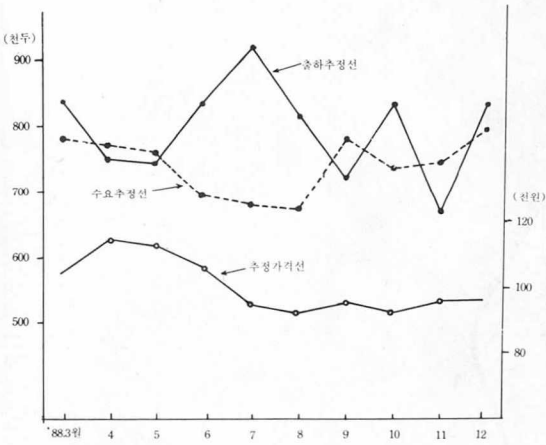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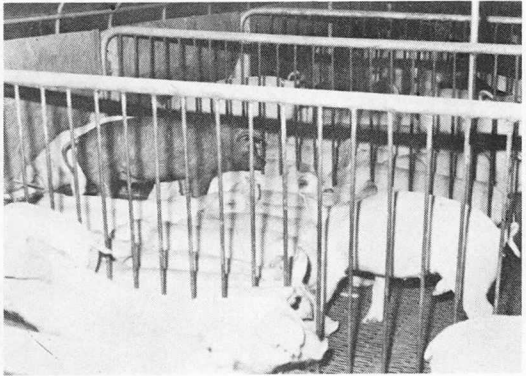


그림 3. 월별 돼지가격 전망



추측된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돼지값은 변동하게 될 것이나 출하돈을 조거나 지연출하로서 적절히 조절한다면 예상되는 돼지값 약세를 금년중에는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5. 맺음말

양돈경기 전망 즉, 축산관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측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내부적 자료로만 활용하였을 경우에는 관측지도 사후에 현실치와 거의 같아지지만, 반대로 대외에 홍보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된 양축농가,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각각 자기 입장에서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관측치는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현실치와 일치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관측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는 양축농가에게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사육두수 조절을 유도하여 과잉·과소 생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물 수급 안정을 통한 축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양축 소득을 유지케 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금년 하반기에는 사육두수 증가

에 따라 가격은 약세가 예상된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축가들은 “나 한사람 정도야 사육두수를 증가시켜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양축가가 총두수 특히, 모돈수 증식 억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돼지가격 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 7~8월에 출하될 물량은 5~6월에 조기출하하든지 9월로 지연출하를 하는 등 출하 조절을 하여야 하며, 가격 하락시에 소홀하기 쉬운 각종 예방을 철저히 하는 등 양돈경영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수익 증대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